사회초년생 절반 빚진채 출발

신한은행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설문조사
경력 3년 이하 사회초년생 47%, 대출잔액 보유

학자금 대출 등을 이유로 빚을 떠안고 출발하는 사회초년생들이 절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신한은행이 발표한 '2018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경력 3년 이하 사회초년생의 47%가 평균 2959만원 상당의 대출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신한은행 빅데이터센터가 조사업체에 의뢰해 전국 만 20~64세 금융소비자 2만명(95% 신뢰 수준, 오차범위 ±0.69%)을 대상으로 9월25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은 단연 '학자금 대출(21%)'이었다.

학생 시절 높은 학비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다. 이어 주택담보대출(8%), 신용대출(8%), 전월세자금대출(8%)도 상당 부분 차지했다. 자동차 대출(6%)과 현금서비스 대출(3%)도 일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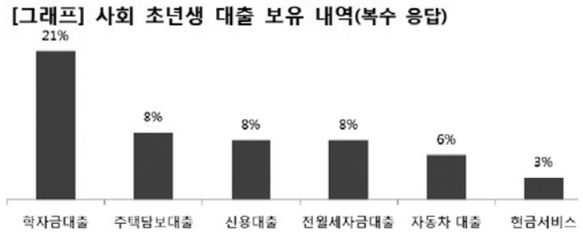
빚을 갚는 데에 드는 비용은 월 평균 61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봉 상승분을 감안하지 않고 완전히 빚을 다 갚는데 까지는 평균 4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신용대출을 받은 20~30대 미혼 직장인은 생활비(40%) 목적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자동차나 가전, 가구 등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직장인들도 19%로 뒤를 이었다.기존의 대출금을 갚기 위해 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받았다는 답변도 18%에 달했다. 이어 주택구입비 마련(11%), 전세금대출(10%), 부동산구입(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사회 초년생 대출 보유 내역(복수 응답)



한편 사회초년생의 84%는 연봉을 평균 695만원 더 주면 다른 직장으로 옮길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50대 전체 직장인의 75%는 평균 946만원을 올려줘야 이직할 것으로 조사됐다.

신한은행은 지난해부터 매년 1차례씩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조사부터는 대상 인원 수가 기존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늘어났고, 조사 범위도 경제 활동자에서 다양한 소비자로 확대됐다.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1인 가구, 경력단절 여성, 창업 준비, 자녀교육비, 노후 준비 등 7가지 주제와 이슈를 다룬 보고서는 내년 1월 정식 발간된다.

데이터는 신한은행 빅데이터 상담지원 시스템에도 탑재되고, 향후 상품 서비스 개발 등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뉴시스

"선물시장 진출로 비트코인 랠리 끝날 수도"

미국 대표적 거래소 3곳 입성 예약

가상화폐의 선두주자인 비트코인이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시카고 옵션거래소(CBOE), 나스닥 등 미국의 대표적인 거래소 3곳으로의 입성이 예약된 가운데, 이 같은 정규 선물 시장 진출이 '비트코인 랠리'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산타클라라대학의 아툴라 사린 교수는 6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기고한 '비트코인의 새로운 거래 방식이 랠리를 죽일 수 있다(This new way to trade bitcoin could kill its rally)'라는 글을 통해 정규 선물시장을 통해 유입되는 새로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랠리'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CBOE는 11일부터 'XBT'라는 이름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한다.

CME는 이보다 일주일 늦은 18일부터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한다.

나스닥도 내년 초부터 비트코인 선물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증되지 않은 뒷골목 투자상품 쯤으로 거래되던 비트코인이 이제 정규 시장의 각광받는 상품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린 교수는 "비트코인이 이들 정규 거래소의 상품으로 출시되면 투자자들은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된다. 우선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과정이 크게 간편해진다. 또한 정규 선물시장을 통한 투자는 기존의 비트코인 거래소에 비해 거래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다. 비트코인의 선물 시장 진출과 함께 유동성은 개선되고, 변동성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트코인 거래가 훨씬 질서 있게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사린 교수는 "기관 투자자들이 거래소 간 가격차이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 현물시장 및 선물시장의 비트코인을 다량 사들일 경우 비트코인 시장이 불안정하게 될 수 있다. 물론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많다. 그러나 극단적인 경우 선물시장을 이용하는 비트코인 거래 자체가 코너에 몰린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부 월가 전문가들은 이보다 더 한 상황을 예측하기도 한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즈 그룹(Interactive Brokers Group, Inc.)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인 토머스 피터피는 비트코인 가격의 급락은 청산소의 유동성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청산소의 유동성 문제가 금융시장으로 번질 경우 리먼 브러더스 붕괴와 같은 금융위기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사린 교수는 "나의 연구와 다른 학술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트코인 시장으로 새로운 투자자들이 유입되는 데 따른 긍정적인 영향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우려를 넘어서고 있다. 비트코인 파생 상품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새로운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CME and CBOE가 비트코인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는 발표를 한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은 더욱 치솟았다"라고 전했다.

사린 교수는 "새로운 투자자들의 유입은 대부분 투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경우 새로운 투자자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고 신중을 기했다.

그는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비트코인을 신뢰하는 이들이다. 그들은 비트코인이 웹3.0 시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믿고 있다. 그들은 지금보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더 올라가더라도 팔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의 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40대 이상 중 · 장년층 "최저 생활비 월평균 192만원"

은퇴 시점이 머지 않은 40대 이상 중·장년층은 한 달에 최저 190만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신한은행이 발표한 '2018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40대 이상 금융 소비자가 생각하는 은퇴 후 최저 생활비는 월평균 192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신한은행 빅데이터센터가 조사업체에 의뢰해 전국 만 20~64세 금융소비자 2만명(95% 신뢰 수준, 오차범위 ±0.69%)을 대상으로 9월25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반면 실제 은퇴 가구의 한 달 지출 금액은 평균 224만원으로 집계돼 40대 중·장년층의 인식보다 32만원 더 많이 든다고 설명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저축을 하는 20~50대 직장인은 47%로 지난해 조사(41%) 때보다 많아졌다.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그만큼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저축 액수는 월평균 26만원으로 근로소득 평균치(285만원)의 9% 수준에 머물렀다.

저축을 하지 않는 비중은 26%로 집계됐다.

이유로는 '저축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없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7%로 가장 많았다.

/뉴시스

하림, 혼밥족 위한 '엄마닭 캠페인' 진행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며 혼자 밥을 먹는 혼밥족의 비율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하루 한 끼 이상 혼밥하는 사람은 54%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혼밥을 할 경우 나트륨 섭취량이 높아지며 비만이나 만성질환 등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아 현대인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에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은 연말연시를 맞아 혼밥족의 잃어버린 입맛과 건강을 되찾아주자는 취지에서 대국민 프로젝트 '엄마닭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인스턴트나 레토르트 식품에 익숙한 청년들과 매끼 식사비용 지출이 부담인 직장인과 취준생 등 1인 가구 및 혼밥족을 위해 가족을 생각하는 엄마의 따뜻한 마음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캠페인 응모방법은17일까지 하림 '엄마닭 캠페인' 영상을 감상한 후, 선물박스를 전해주고 싶거나 받고 싶은 사연을 적어 신청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하림의 프리미엄 닭고기 브랜드인 자연실록 제품으로 구성된 '엄마닭 박스'(100명)를 비롯해 백화점 상품권 50만원(5명), 10만원 상품권(10명), 모바일 음료 교환권(500명)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익산=장양원기자

전북은행, 19대 노조위원장에 최강성 후보 당선

전북은행 제19대 노동조합위원장에 최강성(사진) 후보가 당선됐다.

7일 전북은행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선거에서 노조위원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최 후보자는 찬반 투표 결과 96.2%를 차지하면서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제18대 노조 위원장 출신인 최 당선인은 "지난 3년 동안 진정한 소통과 건강한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자부한다"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사관계 재정립과 고용 안정, 미래 비전의 제시, 근로 조건 개선과 복지 증진을 쟁취하고 노동의 가치를 되찾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핵심 과제로 독립 경영과 경영진 견제강화를 비롯해 전북은행 위상 강화 지속추진,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행복한 일터마련, 미래가 있는 일터 구축을 통한 고용안정 강화, 실질적 복지증진을 통한 행복한 직장 실현 등을 내세웠다.

최 당선인은 "더 강한 노동조합, 더 행복한 전북은행을 만들어 가기 위해 19대 집행부 모두는 부족하지만 특유의 성실함으로 무한책임을 감당할 것이며, JB금융지주의 모태인 우리 전북은행을 흔들림 없이 지켜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민근기자

조성완 前소방방재청 차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신임 사장 취임

한국전기안전공사 제16대 사장으로 조성완(사진) 전 소방방재청 차장이 7일 취임했다.

신임 조 사장은 임기는 오는 2020년 12월6일까지 만 3년이다.

조 사장은 충북 보은 출신으로 서대전고를 나와 충남대 물리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기술고시(26회)에 합격해 이듬해 소방간부 특채로 임용되면서 줄곧 소방 방재 분야에 몸담아 왔다.

강원도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을 시작으로, 대전 소방본부장과 중앙소방학교장,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장, 서울소방재난본부장 등을 거친 후, 2013~14년 소방방재청 차장을 역임했다. 재임 시 대통령표창과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바 있다.

조 사장은 이날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기본에 충실한 업무 수행, 변화와 혁신을 통해 앞서 가는 조직,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 함께 와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민근기자